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와이엠씨(155650)**

## 하드웨어/IT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         |            |       |           |
|---------|------------|-------|-----------|
| 작 성 기 관 | (주)NICE디앤비 | 작 성 자 | 정대관 선임연구원 |
|---------|------------|-------|-----------|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와이엠씨(155650)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부품 및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전문기업

## 기업정보(2021/02/25 기준)

|      |                         |
|------|-------------------------|
| 대표자  | 이윤용                     |
| 설립일자 | 2008년 02월 12일           |
| 상장일자 | 2012년 11월 15일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 업종분류 | 디스플레이 제조용<br>기계 제조업     |
| 주요제품 | 디스플레이, 반도체<br>제조용 소재·부품 |

## 시세정보(2021/03/02 기준)

|          |             |
|----------|-------------|
| 현재가      | 9,240원      |
| 액면가      | 500원        |
| 시가총액     | 1,846억원     |
| 발행주식수    | 19,974,358주 |
| 52주 최고가  | 15,200원     |
| 52주 최저가  | 3,600원      |
| 외국인지분율   | 5.11%       |
| 주요주주     |             |
| 이윤용 외 1인 | 31.35%      |
| 자사주      | 6.34%       |

## ■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제조 기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을 통해 매출 성장

와이엠씨(이하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세정공정의 필요한 부품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 중 증착공정에서 필요한 배선재의 재료인 타겟과 관련 부품인 백킹 플레이트를 주요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장비용 부품, 반도체 증착장비용 부품 등을 개발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부품 국산화 및 사업 다각화

동사는 2010년 증착공정의 핵심 소재인 타겟과 관련 부품인 백킹 플레이트의 국산화를 완료하였다.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의 경우, 장비와의 정합성이 최우선으로 여겨지고 있어 장기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다. 또한, 동사는 한정된 사업 범위 확장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제품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사는 정전 척, 상하부 전극, 서셉터, 디퓨저 등을 개발하며 제품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다.

## ■ OLED 생산량 증대를 위한 LCD 제조설비 대규모 전환 계획

동사는 2016년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을 진행하며, 국내 유일의 LCD 생산설비 이설 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주)는 OLED 시장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아산 공장의 LCD 제조설비 일부 라인 매각을 통해 OLED 제조설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장비 전환의 경우, 기존 제조설비의 해체 및 이설이 필수적이며, LCD 생산장비의 경우 세대에 따라 장비가 대형화되고 있어 이설 금액 규모가 과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는 해체 및 이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 구분<br>년 | 매출액<br>(억 원) | 증감<br>(%) | 영업이익<br>(억 원) | 이익률<br>(%) | 순이익<br>(억 원) | 이익률<br>(%) | ROE<br>(%) | ROA<br>(%) | 부채비율<br>(%) | EPS<br>(원) | BPS<br>(원) | PER<br>(배) | PBR<br>(배) |
|---------|--------------|-----------|---------------|------------|--------------|------------|------------|------------|-------------|------------|------------|------------|------------|
| 2017    | 1,540.2      | 25.4      | 199.9         | 13.0       | 165.2        | 10.7       | 26.7       | 10.1       | 190.8       | 841        | 3,859      | 18.6       | 4.0        |
| 2018    | 2,408.7      | 56.4      | 221.4         | 9.2        | 159.6        | 6.6        | 19.9       | 7.8        | 100.9       | 805        | 4,409      | 8.0        | 1.5        |
| 2019    | 1,670.7      | -30.6     | -59.2         | -3.5       | -14.1        | -0.8       | -2.0       | -0.9       | 54.1        | -81        | 4,194      | -          | 1.7        |

## 기업경쟁력

###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부품 국산화

-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한 기술력 확보
- 삼성전자(주)와 구매조건부 협약을 통해 대형 패널전용 백킹 플레이트 개발 및 장비와의 정합성 확보

### 핵심기술 기반 사업 다각화 역량

-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양산을 통해 기존 사업영역에 대한 공정기술 확보 및 신사업 영역 진출 기반 마련
-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증착공정에 필요한 부품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핵심기술

- 백킹 플레이트, 타겟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력 보유
-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 국내 유일 보유업체
- 소재·부품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정전 척, 상·하부전극, 서셉터, 디퓨저 등의 제품 개발완료

### 연구개발 실적 및 지표

-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018년 0.57%, 2019년 0.98%, 2020년 3분기 누적 1.21%로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중
- 소재·부품 관련 특허 13건 보유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등 R&D 사업 다수 참여

### 적용제품

#### 주요 제품군

Cu Target   Al Target   Ti Target   Rotary Target



Plate Target

일체형 Plate

분리형 Plate



### 매출실적

■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유형별 비중 (단위: 백만 원, %)

| 매출유형 | 품목               | 매출액    | 비중    |
|------|------------------|--------|-------|
| 제품   |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 34,753 | 36.0  |
|      |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 33,850 | 35.0  |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 16,277 | 16.8  |
|      | Scrap 등          | 11,750 | 12.2  |
| 총 합계 |                  | 96,630 | 100.0 |

## 시장경쟁력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및 전망

|               | 2019  | 2020(E) | 2021(E) | 2022(E) | 2023(E) | 2024(E) |
|---------------|-------|---------|---------|---------|---------|---------|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 1,080 | 1,155   | 1,205   | 1,280   | 1,322   | 1,354   |

-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속 성장 추세 (단위: 억 달러)
- 디스플레이 시장은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 한국 디스플레이 수출 전망

| 연도    | 시장규모        | 성장률                     |
|-------|-------------|-------------------------|
| 2018년 | 1조 301억 원   | 연평균 6.1% ▲<br>(CAGR 적용) |
| 2021년 | 1조 3,050억 원 |                         |

### 프리미엄 시장 확대에 의한 지속 성장 기대

- 대형패널, 롤러블 TV,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지속 성장 추세
-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고, 두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

## 최근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LCD 제조설비 철수 계획에 따른 이설 수주 전망

- 동사 주요 고객의 OLED 제조설비 증설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수요가 예상
- 국내 유일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 보유

### 디스플레이 판매량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동사의 소재, 부품 수요증가 기대

### 딜러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외 신규 거래선 확장

- 해외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제휴 강화 진행

## I. 기업현황

###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용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LCD 제조설비 이설 분야 수주 확대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에 필요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 등을 국산화하여 삼성디스플레이(주)에 지속적인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로 소재·부품과 해체 및 이설 사업 분야의 전문업체로 자리잡았다.

#### ■ 회사 개요

동사는 2008년 2월 설립 이후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 부품,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설립 초기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 중 세정 장비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였으며, 2008년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의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에 공급을 시작하였다. 또한, 동사는 2016년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을 수주하며 매출 급성장을 이루며 동사의 주요 사업으로 편입하였다. 동사는 제품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부품 개발을 완료하였다.

#### ■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

동사의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동사의 대표이사인 이윤용으로 동사의 지분 31.30%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분기보고서(2020.09) 기준 2개의 자회사와 1개의 손자회사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로 (주)와이컴, 레오텍(주) 등이 있고, 손자회사로 와이엠피(주)가 있다.

[표 1] 동사의 계열회사

| 계열사     | 최대주주    | 최대주주 지분율 | 비고   |
|---------|---------|----------|------|
| (주)와이컴  | 와이엠씨(주) | 48%      | 자회사  |
| 레오텍(주)  | 와이엠씨(주) | 90%      |      |
| 와이엠피(주) | (주)와이컴  | 63%      | 손자회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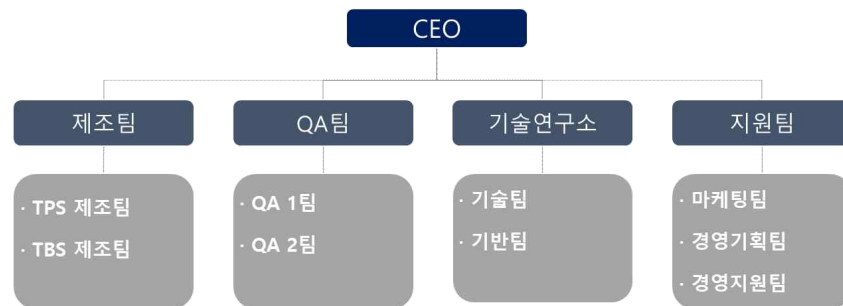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 ■ 대표이사 및 조직현황

동사의 대표이사는 이윤용으로 서강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89년에서 2007년까지 삼성전자(주)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의 임직원은 임원 10명, 직원 21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조팀, QA팀, 기술연구소, 지원팀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동사의 조직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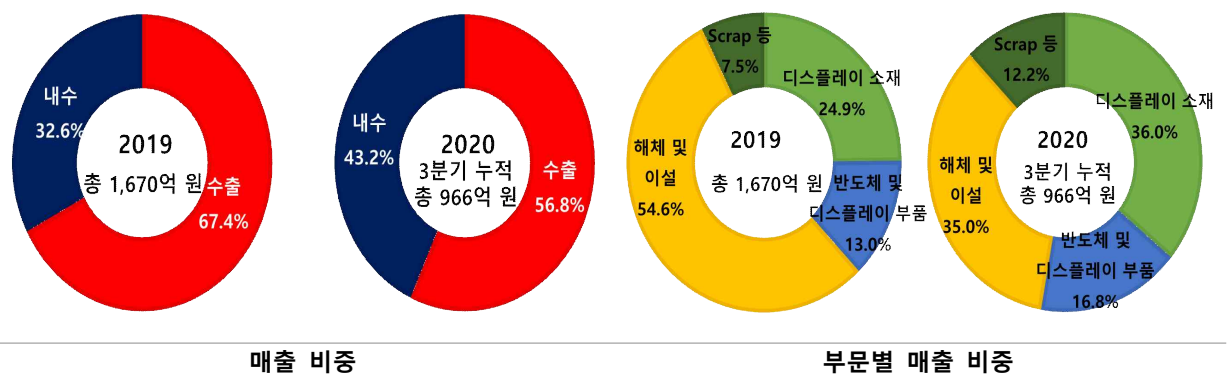
## ■ 주 사업영역 관련 핵심기술

동사는 2010년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 중 증착공정의 박막형성 및 증착공정에서 필요한 Glass에 전류를 전도하는 배선재의 재료인 타겟(Target)과 관련 부품인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를 국산화에 성공하며 증착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최근 동사는 건식식각 공정 중 대형 기판을 균일하고 평탄하게 하부전극과 밀착시키는 정전 척(ESC), 유리기판을 식각하는데 사용되는 건식식각 장비 부품(상·하부전극), 화학기상증착공정에 필요한 장비 부품(서셉터, 디퓨저)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 ■ 주요 사업 부문에 따른 매출 구성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의 매출 비중은 2020년 3분기 누적기준 수출 비중이 56.8%, 내수 비중이 43.2%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부품,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Scrap 등으로 나누고 있다. 동사의 대표 사업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와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이며, 동사 매출의 70%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동사의 수출 비중과 부문별 매출 비중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 II. 시장동향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과 OLED 생산확대를 위한 LCD 제조설비 매각

동사가 생산하는 소재·부품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품이며, 이는 최근 디스플레이 수요 확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OLED 생산체제 전환 시 동사의 주요 사업인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수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전후방산업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는 디스플레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은 장비·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이며,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 새로운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제품군에 의해 산업이 급변하는 특성을 보여 신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요한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LCD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과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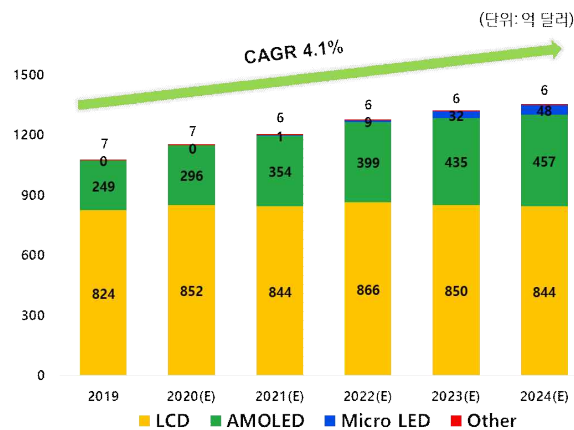
#### ■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전망

시장조사기관인 IHS(2019)에 따르면, LCD, OLED 및 기타 디스플레이를 합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2019년 1,080억 달러에서 2020년에 1,15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이후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1,355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OLED의 시장 확대에 의해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패널 업체들의 설비투자 및 가동률 조정 등으로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에 따르면, 5G 시대가 열리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대화면, 고해상도로의 변화가 가속될 것이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패널 공급과잉으로 TV용 LCD 패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며 LCD 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적으로, TV Set 업체는 초대형 프리미엄 LCD TV 시장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며, 폴더블 OLED 시장의 기대, QD OLED의 투자가 예상되어 OLED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동사의 주력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이 다양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약 8,866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기술 발굴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인 대면적 침탄 패키징용 본딩, 몰딩 장비, 8.5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용 클러스터 Sputter 장비 등 국가 R&D 과제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로 동사의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표 2] 세계 디스플레이 종류별 판매 비율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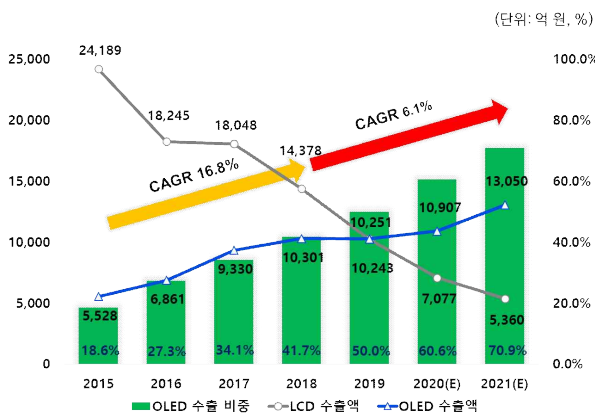
|           | 2019  | 2020(E) | 2021(E) | 2022(E) | 2023(E) | 2024(E) |
|-----------|-------|---------|---------|---------|---------|---------|
| LCD       | 76.3  | 73.7    | 70.0    | 67.7    | 64.3    | 62.3    |
| OLED      | 23.0  | 25.7    | 29.4    | 31.1    | 32.9    | 33.7    |
| Micro LED | -     | -       | 0.1     | 0.7     | 2.4     | 3.6     |
| Other     | 0.7   | 0.6     | 0.5     | 0.5     | 0.4     | 0.4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총금액       | 1,080 | 1,155   | 1,205   | 1,280   | 1,322   | 1,354   |

\*출처: OMDIA, NICE디앤비 재구성

## ■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현황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국내 OLED 수출 금액은 2015년 5,528억 원 규모에서 18.8%의 성장률로 2018년 1조 30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6.1%로 성장하여 2021년 1조 3,050억 원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 한국 디스플레이 수출 규모 및 전망



[표 3]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금액)

(단위 :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E) |
|----|-------|-------|-------|-------|---------|
| 한국 | 45.8  | 44.4  | 42.6  | 40.1  | 34.3    |
| 중국 | 17.6  | 21.0  | 25.0  | 31.0  | 36.3    |
| 대만 | 21.3  | 26.2  | 24.4  | 22.0  | 21.4    |
| 일본 | 14.3  | 7.5   | 6.7   | 6.0   | 4.3     |
| 기타 | 0.9   | 0.9   | 1.2   | 1.0   | 0.6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출처: OMDIA, 한국무역협회(KITA), NICE디앤비 재구성

시장조사기관 OMDIA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2016년 45.8%에서 2019년 40.1%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LCD 제조설비 철수 및 매각을 통해 LCD 제조설비를 OLED 제조설비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고, 폴더블폰, 롤러블 TV 등 프리미엄 라인이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디스플레이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해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공표하였고, 올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및 혁신형 제품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세계 1위 경쟁력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Ⅲ. 기술분석

###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부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보유

동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정전 척, 상·하부전극, 서셉터, 디퓨저 등을 개발하여 제품 다각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을 국내 최초로 진행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 디스플레이 타겟 소재 국산화를 통한 시장 강화

박막용 고정기술은 국내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나 박막을 위한 타겟 소재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타겟의 경우 스퍼터링<sup>1)</sup> 장비에 장착됨에 따라 장비와의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스퍼터링 장비가 수입되면서 초기 단계에 소재·부품이 함께 수입되어 장비와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동사는 2008년 PVD 증착 방법 중 스퍼터링 방법에서 박막재로 사용되는 TFT<sup>2)</sup>-Array용 금속 배선재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0년 개발에 성공하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에 납품을 시작하였다. 동사는 2009년까지 주요 타겟 소재로 사용되던 알루미늄 소재를 양산화에 성공하였고, 이후 전도성이 우수하고 화면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 구리가 주요 소재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구리소재 제품 양산을 진행하였다. 동사는 알루미늄 소재로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구리, 타이타늄, 몰리브덴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

[그림 5] 동사가 양산하고 있는 타겟 소재 및 백킹 플레이트

| Cu Target                                                                           | Al Target                                                                           | Ti Target                                                                            | Rotary Target                                                                         |
|-------------------------------------------------------------------------------------|-------------------------------------------------------------------------------------|--------------------------------------------------------------------------------------|---------------------------------------------------------------------------------------|
|  |  |  |  |
| Plate Target                                                                        | 밀체형 Plate                                                                           | 분리형 Plate                                                                            |                                                                                       |
|  |  |  |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 09)

1) 스퍼터링(Sputtering): 이온화된 원자를 전기장에 의해 가속 시켜 피목물질에 증착하는 방법

2)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지스터(컴퓨터나 휴대전화의 평면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

## ■ 스퍼터링 타겟용 백킹 플레이트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물리 기상 증착법<sup>3)</sup>(Physical Vapor Deposition)에서 스퍼터링 공정에는 배선재료로 타겟이 필요하며, 타겟을 고정시키기 위해 일종의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타겟의 면과 백킹 플레이트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인듐 소재를 통해 접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하지만, 스퍼터링 챔버 내부의 온도가 200℃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용점이 156.63℃인 인듐을 통해 접착면을 유지할 수 없다. 접착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이 백킹 플레이트로 접합면의 온도를 70~80℃로 유지시켜 접착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동사는 삼성전자(주)와 구매조건부 협약을 통하여 2009년 스퍼터링 타겟용 백킹 플레이트 개발에 착수하여 장시간의 실험과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해 백킹 플레이트 설계 및 장비와의 정합성 확보 기술 등을 확보하였다. 백킹 플레이트는 단순히 보면 타겟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고정장치이지만, 공정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부품이다. 동사의 백킹 플레이트는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동사의 백킹 플레이트 소재는 전기 및 열전도가 높은 구리를 사용하고 있다. 알루미늄, 폴리브덴, 탄소강 또한 백킹 플레이트로 사용 가능한 소재이지만, 구리의 경우 정밀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소모된 타겟에 장착된 백킹 플레이트는 대부분 재생이 가능해 새로운 타겟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백킹 플레이트는 스퍼터링 챔버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사용 교체 주기는 약 8~9년 정도(가동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매년 일정량의 교체수요가 있으며, 신규 제조설비가 생기는 경우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

## ■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에 최적화된 FPD 공정 장비 부품

TFT 제조공정 중 건식식각<sup>4)</sup> 공정의 진행을 위해서 대형 기판을 평탄하고 균일하게 하부 전극에 밀착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판을 하부 전극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기계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기판의 대형화로 인해 정전 척<sup>5)</sup>(ESC)을 이용한 공정 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정전 척은 문자 그대로 피 흡착체와 척사이에 정전력을 발생시켜 흡착시키는 제품이다. 현재, 디스플레이 관련 패널이 대형화됨에 따라 동사는 고객의 장비와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LCD 제조공정 중의 하나인 건식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균일한 가스 흐름을 유지시키는 핵심 부품인 상부전극과 LCD와 반도체 공정에서 장비 내부의 정전기를 이용해 정전기의 힘만으로 기판과 전극 사이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하부전극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사는 CVD<sup>6)</sup> 공정 장비부품인 서셉터와 디퓨저도 제작하고 있다. 서셉터의 주요 역할은 균일한 온도전달로 패널 제조시 대면적에서 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여 Glass가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여 향상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이루는 것이고, 디퓨저는 증착 대상물인 유리기판에 균일하게 가스를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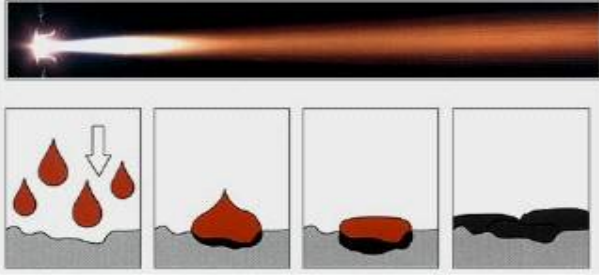
3) 물리 기상 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고진공속에서 고체물질을 방해물 없이 피도금물에 도금하는 것

4) 건식식각(Dry Etching): 기체 플라즈마나 활성화된 기체에 의한 반응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나머지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5) 정전 척(Electrostatic Chuck): 정전기의 힘을 사용해 기판을 하부 전극에 고정해 주는 핵심 부품

6) 화학기상증착(Cheical Vapor Deposition): 화학 물질을 플라즈마 및 열을 이용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

[그림 6] 동사의 FPD 공정 장비 부품

| 용사(Plasma Spray) 원리                                                                |             |                                                                                    |    | 용사 피막의 단면조직                                                                         |                                                                                      |
|------------------------------------------------------------------------------------|-------------|------------------------------------------------------------------------------------|----|-------------------------------------------------------------------------------------|--------------------------------------------------------------------------------------|
|   |             |                                                                                    |    |   |   |
| 용융<br>입자비행                                                                         | 표면에<br>충돌정착 | 열확산                                                                                | 소결 |                                                                                     | 상부 코팅층                                                                               |
|                                                                                    |             |                                                                                    |    |                                                                                     | 하부 코팅층                                                                               |
| 상부전극                                                                               |             | 하부전극                                                                               |    | 디퓨저(Diffuser)                                                                       | 서셉터                                                                                  |
|  |             |  |    |  |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 09)

## ■ 디스플레이 소재 · 부품 관련 핵심 기술력 보유,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

동사는 2010년 6월 공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및 부품관련 사업에 관한 공정기술과 부품기술, 생산기술을 개발해왔다. 또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진공 척,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의 비접착식 체결구조, 공정액용 필터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필터링 방법 등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핵심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의 국가 R&D 사업에 참여해 장비기술, 소재 개발기술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표 4] 동사의 국가 R&amp;D 사업 수행 실적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br>(2015.12~2017.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적 회로설계기술과 무-유기 융합소재기술을 결합하여 내전압 성능을 향상한 AMOLED 디스플레이 Etching 공정용 6세대급 ESC 기술개발</li> <li>- 디스플레이 Etching 공정용 6세대급 ESC 개발을 목표로 개발 수행</li> </ul> |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br>(2018.12~2019.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처리를 통한 Mg 제어, 초음파 세정, Co<sub>2</sub> 세정 기술개발</li> <li>- 열처리를 통한 Mg 제어로 CVD 공정에서의 seasoning 막 분리 현상 감소 등을 목표로 개발 수행</li> </ul>                  |

\*출처: NTIS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표 5] 동사의 연구역량 지표

| 연구개발투자비율    | 2018년   | 2019년   | 2020년 3분기 누적 |
|-------------|---------|---------|--------------|
| 매출액(백만 원)   | 240,874 | 167,066 | 96,525       |
| 연구개발비(백만 원) | 1,383   | 1,637   | 1,170        |
| 연구개발투자비율(%) | 0.57    | 0.98    | 1.21         |

## 주요 지식재산권 현황

| 구분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의 명칭                                       |
|-----|------------|------------|----------------------------------------------|
| 특허권 | 10-1079621 | 2011.10.28 | 타켓과 백킹 플레이트의 비접착식 체결구조                       |
|     | 10-1870739 | 2018.06.19 | 프로브카드용 공간 변환기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프로브카드용 공간 변환기 |
|     | 10-1965648 | 2019.03.29 | 진공 척                                         |
|     | 10-2036689 | 2019.10.21 | 정전척용 DC 포트 및 이를 구비한 정전척                      |
|     | 10-2165392 | 2020.10.07 | 임계소모상태의 검출이 가능한 스퍼터링장치용 타겟                   |
|     | 10-2209860 | 2021.01.25 |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처리장치용 내부부품의 표면처리방법    |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9), KIPRIS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 디스플레이 판매량 증가와 신규 이설 수주 기대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사업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 최초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을 진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동사의 기회로 활용해 사업 다각화 및 매출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주)의 LCD 생산라인 매각 계획이 진행될 경우 국내 유일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을 보유한 동사의 신규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그림 7] SWOT 분석

## Strength

-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확보
-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로 OLED 생산 확대 시 해체 및 이설관련 신규 수주 가능 전망

- OLED 생산량 확보를 위해 LCD 생산라인 해체 계획
  -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장비 해체 및 이설 필요
- 전세계 디스플레이 판매량 증가로 인한 관련 소재·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

## Opportunity

## Weakness

- LCD 제조라인 해체 및 이설 시 작업기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장비와 소재·부품의 적합성이 요구되어 신규 거래처 발굴 시 검증이 필요함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통관 및 작업기간 지연으로 LCD 제조설비 이설 사업관련 추가 부대비용 발생
- COVID-19 등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방산업 투자 계획 연기

## Threat

## IV. 재무분석

### ‘19년 매출 하락 및 전체 영업수지 적자 전환, ‘21년 OLED 시장 약진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2019년 매출 성장세 일단락과 전체 영업수지 적자 전환 등 실적 약화를 나타냈으나 최근 OLED시장 성장세와 주력 고객사의 LCD 사업 철수에 따른 대규모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 시 2021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부품 생산 및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전문업체

동사는 주요 거래처는 삼성디스플레이(주)가 있으며, 다수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 반도체 제조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는 주요 고객사들과 오랜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2019년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 24.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 부품 15.3%,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53.1%, Scrap 등 7.5%로 구분된다.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 LCD, OLED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해외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수출 비중은 67.4%를 기록하였다.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부터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COVID-19로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출이 감소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6]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 항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19년 3분기* | 2020년 3분기* |
|-----------|---------|---------|---------|------------|------------|
| 매출액       | 1,540.2 | 2,408.7 | 1,670.7 | 1,312.5    | 966.3      |
| 매출액증가율(%) | 25.4    | 56.4    | -30.6   | -30.9      | -26.4      |
| 영업이익      | 199.9   | 221.4   | -59.2   | -41.6      | 63.1       |
| 영업이익률(%)  | 13.0    | 9.2     | -3.5    | -3.2       | 6.5        |
| 순이익       | 165.2   | 159.6   | -14.1   | -27.3      | 55.4       |
| 순이익률(%)   | 10.7    | 6.6     | -0.8    | -2.1       | 5.7        |
| 부채총계      | 1,500.0 | 909.6   | 464.4   | 387.4      | 339.4      |
| 자본총계      | 786.1   | 901.5   | 858.9   | 841.8      | 880.2      |
| 총자산       | 2,286.1 | 1,811.1 | 1,323.3 | 1,229.2    | 1,219.6    |
| 유동비율(%)   | 125.4   | 151.6   | 195.0   | 205.7      | 237.6      |
| 부채비율(%)   | 190.8   | 100.9   | 54.1    | 46.0       | 38.6       |
| 자기자본비율(%) | 34.4    | 49.8    | 64.9    | 68.5       | 72.2       |
| 영업현금흐름    | 550.6   | -79.7   | -109.8  | -157.4     | 64.2       |
| 투자현금흐름    | -406.9  | 129.7   | -47.7   | 16.6       | -42.5      |
| 재무현금흐름    | 49.1    | -49.6   | -46.6   | -44.6      | -43.8      |
| 기말 현금     | 397.6   | 395.9   | 189.7   | 213.0      | 167.4      |

※ 분기: 누적 실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 ■ 2019년 매출 성장세 일단락, 전체 영업수익성 적자 전환

동사는 2017년과 2018년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수주로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던 시기에 각각 25.4%, 56.4%의 매출액증가율을 기록하며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19년 전년 대비 30.6% 감소한 1,670.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2019년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중국 TRULY社에서 수주받은 LCD 제조설비 이설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지연으로 파악되며, 수출액이 2018년 대비 47.3%가량 감소하였다. 그 외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통관 및 작업 기간 연장과 같은 비우호적인 외부환경도 매출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사는 2019년 5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으며, 이는 매출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고정성 경비를 포함한 판관비 부담 가중과 매출 지연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 및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율 확대(2018년 86.2%, 2019년 96.2%)로 파악된다. 한편, 2019년 14.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하였으며 적자 규모는 금융비용 축소 등 영업수지 개선으로 영업 손실 규모 대비 작은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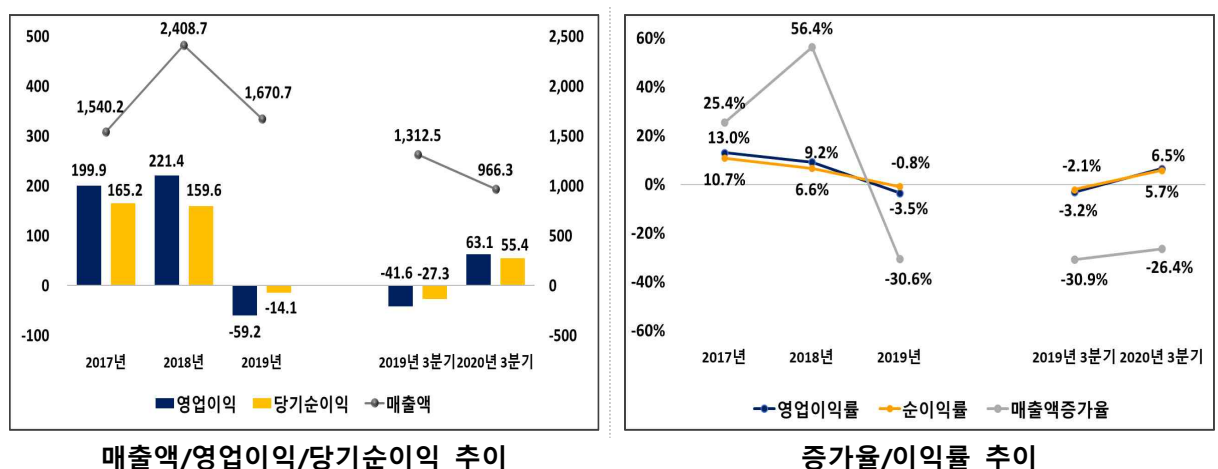
## ■ '20년 3Q 누적 매출액 추이, 전체 영업수지 흑자 전환

동사의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견조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국내 판매에도 불구하고 COVID-19에 따른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수주 부진과 중국향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한 966.3억 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전년도 총매출액의 57.8% 수준이다.

다만,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구조 개선으로 2020년 3분기 누적기준 영업이익 63.1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였고, 법인세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55.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였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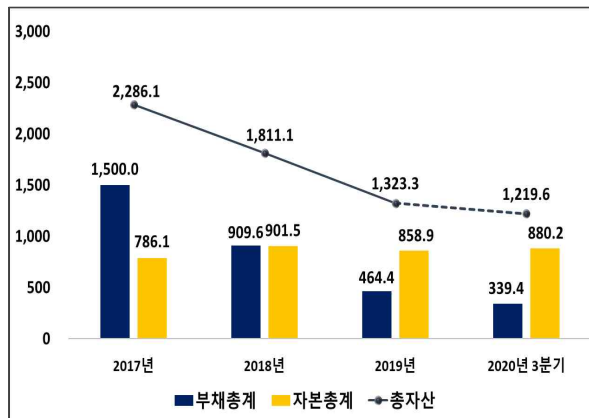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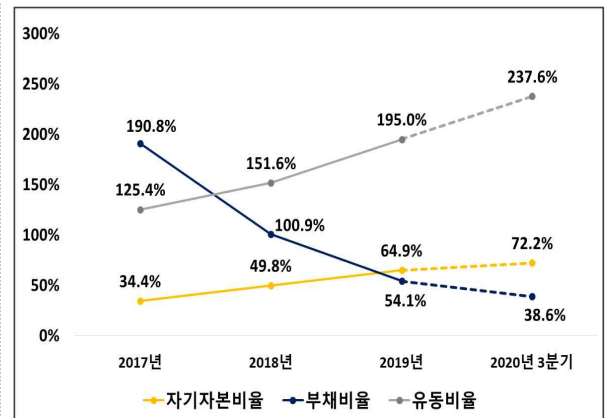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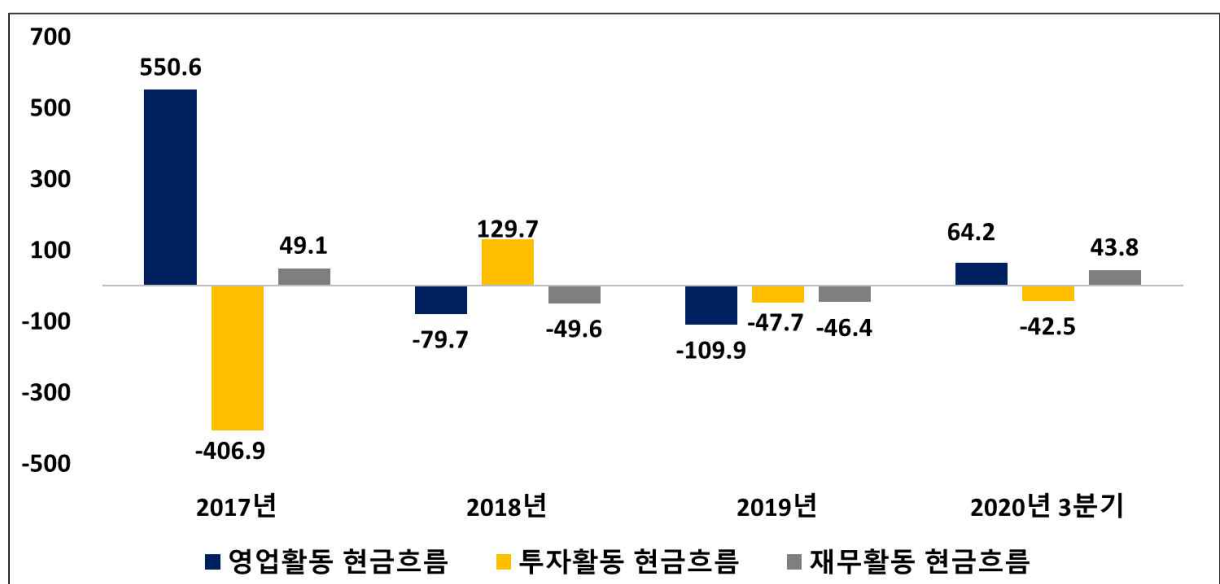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 ■ 2019년 전년에 이어 영업현금흐름 적자 기조 지속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전년에 이어 적자 기조를 지속하였으며 순손실 기록과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영업자산의 증가로 적자 규모는 전년 79.7억 원에서 109.8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형자산의 취득,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등 투자활동을 통한 자금 소요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져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흐름도 적자를 지속한 바, 현금성자산 규모가 2019년 기초 395.9억 원에서 189.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2020년 9월 말 기준, 순이익 흑자 전환에 힘입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64.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였다.

[그림 10]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디스플레이 수요증가와 제품군 증대에 따른 매출 확대 전망

동사는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이며, 주력 고객인 삼성디스플레이(주)의 LCD 사업 철수 계획이 진행에 따라 동사의 신규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로 인해 동사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주요 고객사의 LCD 사업 철수 계획에 따른 대규모 수주 모멘텀 발생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한 966.3억 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동사의 주력 고객인 삼성디스플레이(주)의 OLED 생산확대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공장 LCD 제조설비 이설이 진행될 경우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사는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이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인 점을 고려 시 삼성디스플레이(주)의 LCD 제조설비 이설 작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타사 대비 높게 판단된다. 유안타증권 투자 의견에 따르면 이번 LCD 제조설비 매각에 따른 예상 수주 규모는 7,000~8,000억 원 수준의 대규모일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이설 작업에 대한 매출 인식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2,000~3,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 디스플레이 제품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인한 실적 개선 전망

전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및 기술개발로 인해 LCD, OLED 생산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OMDIA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021년 글로벌 패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전망된다.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0년 기준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을 필두로, 중국, 대만이 약 9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과 제조설비 전환에 따른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사업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동사의 외형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거래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 강화 및 현지법인을 통한 영업망 확충

동사는 현재까지 삼성디스플레이(주)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매출의 안정성을 위해 해외 거래선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의 경우 신규 거래처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 소모가 많으며, 대규모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사는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에이전트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대만 및 중국의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경우 장비와 소재·부품의 정합성이 중요해 동사 주요 고객사 장비의 해외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이외에 소재·부품의 동반 수출이 예상되어 동사의 신규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 ■ 증권사 투자의견

| 작성기관  | 투자의견                                                                                                                                                                                                                                                                                                                                                                                                                                                                                                                                | 목표주가 | 작성일         |
|-------|-------------------------------------------------------------------------------------------------------------------------------------------------------------------------------------------------------------------------------------------------------------------------------------------------------------------------------------------------------------------------------------------------------------------------------------------------------------------------------------------------------------------------------------|------|-------------|
| 메리츠증권 | Not Rated                                                                                                                                                                                                                                                                                                                                                                                                                                                                                                                           | -    | 2020.08.3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 17년 LCD 해체, 이설, 물류, 조립 수주 4,390억 원 경험</li> <li>■ 본업 소재 및 부품은 일본 경쟁사 물량감소에 따른 반대 수혜 진행 중</li> <li>■ 2H20 전방 고객사의 LCD 7세대 8세대 제조설비의 이설 관련 수주기대감</li> <li>■ 순현금 500억 원, 부동산가치 750억 원으로 하방 경직성 보유</li> </ul>                                                                                                                                                                                                                                                                             |      |             |
| 유안타증권 | Not Rated                                                                                                                                                                                                                                                                                                                                                                                                                                                                                                                           | -    | 2020.07.1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부터 본격 성장, 부담 없는 주가 - 삼성디스플레이(주) 충청남도 아산 LCD 8세대 제조설비 이설 작업에 대한 매출 인식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li> <li>■ 8천억 원 수준의 수주와 3년 납기를 가정한 2021년 예상실적은 3,600억 원(+89.5%, YoY), 영업이익 350억원(+133.3%, YoY) 수준. 7세대 제조설비 매각 가능성은 추가 Upside 요인.</li> <li>■ 과거 LCD 5세대 6세대 제조설비 수주로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던 2017년 동사의 12M Fwd P/E가 20배 수준까지 확장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실적 기준 7.8X에 불과한 현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구간.</li> </ul>                                                                                                           |      |             |
| 메리츠증권 | Not Rated                                                                                                                                                                                                                                                                                                                                                                                                                                                                                                                           | -    | 2020.02.19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낮은 기저 이후 ' 20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 - 소재부품 매출 연간 1,000억 원 예상(+25.5%, YoY) 증가: 소재부품 국산화 수혜에 따른 전방 고객사 내 점유율 상승효과 추정.</li> <li>■ QD-OLED, QNED 등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공장 가동 시 초기 낮은 수율로 대규모 소재, 부품 필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는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 선호.</li> <li>■ '20년 예상 매출액은 ' 18년(2,409억 원)보다 높아지며 신규 LCD 제조설비 이설 수주에 따른 +@ 실적 예상.</li> <li>■ '17년보다 더 큰 LCD Fab 신규 이설 사이클 도래 - 이설분야 매출은 해체, 운송이 초기 1년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차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1H20 LCD Fab 이설은 본격화 예상, LCD에서 OLED로의 전환, 신규 대형 디스플레이로 전환투자 흐름 지속.</li> </ul> |      |             |